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마포구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도화지몽
수상내역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작가	명광일, 성기백, 김영진, 박현선, 이은지, 이정웅
공모분야	창작이야기
장르	단편소설
소재	도화동과 도화낭자 설화, 유득공의 시, 용강동 우물, 망원정, 효령대군
기획의도	마포에 산재한 많은 유물과 이야기들을 모아 새로운 설화로 재탄생시켜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아련한 추억과 아름다움을 선물하러 함.
스토리 구성 (Plot)	<p>비 오는 날, 망원정에서 비를 피하던 유득공은 의문의 여인에게 장옷을 건네받고 그녀를 찾기 위해 흔적을 쫓다가 도화꽃이 만발한 미지의 땅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곳에서 선녀와 조우한 유득공은 그녀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애쓰다가 어느새 그녀에게 반하게 된다. 선경(仙境)의 비밀을 지키는 그녀는 유득공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지만, 그가 마음을 고백하고 자주 찾아오게 되면서 조금씩 정을 느껴가게 된다.</p> <p>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서로의 내밀한 부분까지 편안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자 선녀는 자신이 어떻게 항아가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천상의 사람은 옛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다는 사정을 들은 유득공은 애틋한 마음으로 자신이 대신 안부를 전해주겠노라 말한다. 선녀는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하며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말라고 반대하지만, 결국 유득공의 뜻을 이기지 못한다. 한편 최근 유득공의 행동을 미심쩍어하던 유득공의 어머니는 행적을 쫓던 도중 허가 없이 선경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로 인해 천상의 선관들이 출두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만다. 선녀와 유득공은 상제의 재판 끝에 처벌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잊지 말기를 약속한다.</p> <p>이십 년 후, 유득공은 선녀와의 추억이 어린 장소를 찾아간다. 그 시절 둘만의 이야기를 담은 시를 읊조리며 유득공은 감회에 젖는다.</p>

도화지몽(桃花之夢)

정자 바깥으로는 끊임없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다채롭게 잎을 벌린 개나리와 하늘을 품어 안듯 봉우리를 띄우는 진달래, 둘의 키 다툼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충하게 서서 꽃말을 날리는 목련도 모두 쏟아지는 빗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꽃밭 너머의 시냇가는 이미 넘쳐 돌다리 위에까지 차올랐고, 시커먼 구름이 잔뜩 밀려온 하늘은 어지간해선 비를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정자 안의 사내. 소년이라 불러야 어울릴 그는 젖은 갓을 비가 들지 않는 곳에 내려놓고는 중얼거렸다.

“몇 번 써보지도 못했는데...”

성년을 축하한다며 관례(冠禮)를 치른 것이 고작 사흘 전이었다. 이제 어른이랍시고 멋모르고 예전 효령대군(孝寧大君)이 즐겨 찾았다는 망원정(望遠亭)에 놀러왔다가 그만 소나기를 만나고 말았다. 지금쯤 집에는 난리가 났으리라. 사흘 전, 자신을 불러다 앉혀놓고 큰 인물, 유(柳)씨 가문에 부끄럽지 않은 인물이 되라며 다독여주던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휴.....”

소년, 유득공은 길게 한숨을 쉬며 정자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돌다리 위에 용산방(龍山坊) 외계(外契)라고 쓰여 있는 비석까지 물이 차올라 조금 후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세상은 온통 물바다로 변해가고, 빗물에 부서진 꽃잎들이 냇가에 떠올라 꽃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비가 거세게 내릴수록 꽃길은 더욱 넓어졌다.

길의 끝은 어디일까 거닐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벌 뿐인 두루마기가 젖는다는 사실도, 하나 뿐인 갓을 며칠 동안 말려야 된다는 사실도 잊었다. 유득공의 유혜(油鞋)가 꽃길을 어지르며 유영하듯 나아가고, 쏟아지는 빗소리가 행진가인 양 듣기 좋은 가락으로 그의 귀를 간질였다. 유득공은 눈을 감고 그 가락을 느끼며 읊조렸다.

“바람 불고 비오니 시냇물 불어나는 것이.

이 봄이 가기 전에 용산방 구경가세나.”

두 구절을 부른 유득공은 조금 느릿해진 빗소리의 장단에 편안하게 생각에 잠겼다. 이제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려는데, 어디선가 전해지는 열은 향기가 그의 감각을 어지럽혔다. 동시에 어깨 위로 무언가 부드러우면서 포근한 촉감이 전해졌다. 유득공은 번쩍 눈을 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요?”

대답은 없었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그의 어깨에 얹어진 하얀 장옷과, 그 장옷의 따스한 촉감만이 방금 여기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음을 알려줄 따름이었다. 여인네들이 쓰고 다니는 것이 분명했다. 허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까보다 잦아든 빗줄기만이 그 자리의 정적을 깨고 있을 따름이었다. 유득공은 곧장 꽃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이보시오!!”

사라진 걸까. 사방이 꽃과 나무뿐인데 숨을 곳도 여의치 않다. 그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은 장옷에 물기도 묻어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비는 장옷에도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문득 밀려오는 추위에 유득공은 장옷으로 제 몸을 덮고 돌다리 반대쪽으로 펼쳐진 꽃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절로 이가 시리고 몸이 떨렸지만 목덜미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복사꽃 향기가 화로인 듯 그의 몸을 녹여주고 있었다.

어느새 다채로운 꽃밭 대신 아름다운 잎을 흩날리는 나무들의 모습이 언제부턴가 그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다. 길 초입에는 용산방 내계(內契)라는 비석이 서 있었다. 그제야 먼 곳까지 와버렸음을 깨달은

유득공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불안했지만, 무섭지만 여기서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면 정체불명의 상대는 더욱 자신을 얹잡아 볼 터이다.

“야도(夜盜)처럼 접근해 옷 하나 던져놓고 사라지다니, 졸렬하구나!”

호기롭게 외치고는 발을 들여놓았다. 환영하듯 가지를 흔드는 복사꽃 나무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다. 그 향기에 편안해진 유득공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길을 따라 걸었다.

그의 주변으로 나비 한 마리가 다가왔다. 복사꽃 향기를 풍기는 나비였다. 한동안 그의 앞에서 맴돌던 나비는 두 갈래로 나뉘지는 길 사이에서 오른 쪽으로 날아갔다. 유득공은 별 생각 없이 그 나비를 쫓아 오른쪽 길로 향했다. 그와 함께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튀어나와 유득공 주변을 맴돌았다.

인도라도 하듯 나비들의 날갯짓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참을 와서야 그 사실을 깨달은 유득공의 마음속에 잠들어있던 불안이 다시 스멀스멀 퍼지기 시작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일. 마음을 다잡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주변을 경계하는 것은 잊지 않는다.

유득공은 연신 주위를 살피며, 나비가 어디서 등장하는 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유득 그가 지나가는 길의 나무에는 꽃잎이 적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투명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도령은 참으로 호기심이 많군요.”

유득공은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작은 우물 옆에, 무복(巫服)을 연상시키는 하늘하늘한 백의의 여인이 면사를 쓰고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나비들은 사라졌다. 유득공은 면사에 가려진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생각에 잠겼다.

“여기는 도령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닙니다. 이제 비가 그쳤고 곧 물이 빠질 터이니, 늦기 전에 댁으로 돌아가시지요.”

여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건조한 음성이었다. 유득공은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다가서며 말을 받았다.

“낭자는 어느 댁 규수이기에 이곳에 있으며, 왜 그렇게 사라진 것이요?”

면사의 여인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서 장옷의 것과 같은,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그에게 전해졌다.

“사정이 있어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세요. 옷은 비가 많이 와 잠시 피하라고 드렸을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 그건 고맙소. 한데 왜 모습을 감춘 것이요?”

여인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사정이 있어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세요. 날도 늦었으니 도령께서는 속히 댁으로 귀가하시지요.”

아까부터 대답을 피하는 그녀에게 유득공은 호기심 반 짜증 반으로 반문했다.

“아니, 묻는 말엔 대답도 안하고 가라마라 하는데, 낭자가 용산방 지주라도 되는 것이요? 지금 기이한 일이 한 둘이 아니요. 저 나비도, 이 옷도, 낭자도 말이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득공은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사람이 아니라 요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생각하는 유득공의 오감으로 강렬한 복사꽃 향기가 밀려왔다. 그와 동시에 유득공은 정신을 잃었다.

유득공은 눈을 떴다. 그가 처음 본 것은 바느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헐끗 아들의 모습을 일별한 그녀는 옷감을 정리하며 입을 열었다.

“일어났느냐?”

“어머니...”

유득공은 펄떡 몸을 일으켰다. 꿈인가? 그 여자는 어디 간 걸까.

“여기가...어딴지까?”

“예가 집이 아니면 어디란 말이나. 시장할 테니 밥부터 먹도록 해라.”

방에 혼자 남은 유득공은 어제 일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다. 비가 왔고, 어떤 여자가 장옷을 주었다.

누군지 찾기 위해서 꽃길을 따라 걸었고, 거기에서 복사꽃인지 나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만났다. 그 길의 끝에는 면사를 쓴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요물...”

“자다 깨더니 무슨 헛소릴 하는 게야.”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 가져왔다. 상을 내려놓은 그녀는 방 한 구석에서 다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함을 알았는지 제법 풍성한 반찬이었다. 건물생심이라 했던가, 허기를 느낀 유득공은 서둘러 수저를 들었다. 그릇을 반 쯤 비웠을 때, 어머니가 미심쩍은 듯 장옷에 대해 물었다. 그는 벽에 걸린 장옷으로 시선을 돌렸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면사녀가 준 옷을 보자 어제의 일이 다시 그의 뇌리에 떠올랐다. 요물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녀는 분명 무언가 숨기려 했다.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는다. 눈을 떠보니 집이라는 것 밖에.

“어머니, 저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나십니까?”

“들어오기도 전에 네가 자고 있었는데 어찌 알겠느냐?”

자신이 집에서 나갔을 때 이미 정오는 한참 지난 뒤였고, 둘다리를 건널 때까지 못 해도 이각(30분, 일각은 15분)은 걸렸을 터였다. 그 이후에는 자신도 뭘에 흘렸는지 알 수 없어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해맨 기억을 더듬어 볼 때 결코 짧지는 않았으리라. 두려움이 일었지만 호기심도 작지 않았다. 해치려 했다면 해칠 수 있었을 거라는 상황이, 외려 그에게 묘한 도전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어머니, 집에 소금 있습니까?”

유득공은 장옷을 관가에 가져다준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 소금이 과연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었지만 뭔가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어제 간 길을 찾아갔다.

둘다리는 다시 제 모습을 드러냈다. 넘실거리던 냇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리 아래를 졸졸 흐를 뿐이었고, 사방으로 흩어진 꽃잎들만이 어제 내린 폭우를 증명하고 있었다. 내게 비석 앞에서 잠시 멈춰섰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나비들은 보이지 않는다.

갈림길에서 우물가가 보인다. 유득공은 여차하면 던질 요량으로 품 안의 소금을 한가득 쥐었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척후를 보는 병사처럼 주변을 살살이 훑으며 우물가로 다가갔다. 아무도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침 목이 말랐던 유득공은 바가지로 물을 퍼서 한 모금 마셨다.

“어?”

유득공은 우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입 안을 톡 쏘는 무언가와 함께 몸이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가뿐해졌다. 또한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피부에 와 닿는 바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같이 선명해진 기분이었다.

“대체...이건 뭐지?”

“용강정(龍江井)이라 합니다.”

유득공은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득공 또래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왔다. 유득공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요괴다. 그래 요물이 틀림없다. 요물들은 아름다운 얼굴로 인간을 유혹한다는 이야기도 있잖은가. 그렇게 침착해지려는 그였지만 그녀의 몸짓 하나 하나에 어찌 이리 가슴이 울렁거리는지.

“헌데, 여긴 어떤 일이시지요?”

그녀의 몸에서 풍겨지는 복사꽃 향기가 그의 정신을 아찔하게 뒤덮었다. 유득공은 애써 신색을 유지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이번엔 그런 사술(邪術)은 통하지 않을 것ियो.”

유득공은 소금을 권 주먹을 드러내 보였다. 그녀는 별안간 웃음을 터트렸다.

“풋...하하하하하하.”

맑고 청초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시원한 웃음, 그간에 보인 무감정한 말투와는 달랐다. 유득공은 부

끄러운 한편 약이 올라 날선 목소리로 되물었다.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요?”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해진 얼굴로 말을 받았다.

“그리 들으셨다니 실례했습니다. 이곳은 도령 같은 분께서 오실 곳이 아니니 돌아가 주시지요.”

“싫다고 하면, 갈 수 없다고 하면 또 사술을 쓸 작정이요?”

유득공의 눈에는 어제 그 순간처럼 강한 결의가 배어 있었다. 소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렇게 보내드리면, 도령께서는 또 오실 건가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약간 망설이는 얼굴로 말을 이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녀는 자신을 그저 선계의 향아(姮娥)라고만 밝혔다. 그녀가 하는 일은 유득공 자신처럼 우연히, 혹은 전설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밀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유득공은 그녀의 정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지 반신반의했다.

“쉽게 믿기 어렵군. 그 어떤 비밀이란 건 뭐요?”

일단은 그녀의 말을 더 들어보기로 한 유득공이 물었다.

“말 그대로 비밀입니다.”

“허면 인세에 왜 이런 장소가 있소?”

“그것도 비밀입니다.”

유득공은 대답하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고았다. 멀리서 볼 때는 약관(弱冠)근처일거라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이팔(二八:16세)이나 되었을까. 말투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까만 눈동자나, 살짝 홍조를 띤 보송보송한 뺨이 그의 눈에 아름답게 비쳤다. 그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가 물어왔다.

“무얼 그리 보십니까?”

“아...아니요. 그저...”

유득공은 뒷말을 삼키며 화제를 돌렸다.

“어...음, 그러니까...향..향기가 좋구려.”

“이제 궁금증이 다 풀리셨는지요?”

앉아있던 우물가에서 몸을 일으키며 그녀가 물었다. 대체 뭘 대답해줬는데? 하는 의문과 함께 따라 일어서며 말을 받았다.

“전혀 풀리지 않았다고 하면 또 와도 되요?”

“아니 됩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예상한 반응이기는 했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왜 오면 안 되는 지 알 수 있겠소?”

“그것은...”

순간 말끝을 얼버무리는 것을 유득공은 놓치지 않았다. 이때다 싶어 덧붙였다.

“왜 안 되는 지 다음 날 알려주시오. 어떻게? 그럼 될 것 아니요.”

“아니...저...”

그녀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유득공은 그녀의 장옷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자, 옷은 돌려주겠소. 허니 남자도 나에게 담보를 주시오.”

장옷을 열결에 받은 그녀는 무슨 말이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담보 말이요. 약속을 보증하기 위한 그런...”

“약속을 하고 여기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겠소. 다음 날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으리다.”

“헌데, 제가 그것을 왜 도령에게 알려드려야 하는지요?”

유득공은 침착하게 말을 고르며 대답했다.

“만일 그것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어찌 인간이 여기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지도 알 수 있지 않겠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유득공은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마도 고민하고 있으리라. 흔들리는 눈빛이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 귀여워 보였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음 날 오시(午時)에 뵙지요.”

자신에게 못마땅한 듯 그녀는 획 돌아서 복사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다 설렘 가득 집에 도착한 유득공은 그간 밀린 공부를 위해 진사시에 출제될 책을 펼쳤다.

“자왈, 덕불고 필유린(子曰, 德不孤 必有隣)이라.”

그는 논어의 한 구절을 되뇌었다. 덕이 있는 자는 늘 따르는 이가 있다. 일자랍시고 동네 양반 자제들이 그를 무시할 때, 어머니가 자신을 불러 앉혀놓고 말했었다.

— 너 스스로 대인이 된다면,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며, 너 스스로 그에 구애받지 않을 게다.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할아버님 같은 분이 되어라.

책 속의 글자들이 그의 눈을 찔러오듯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이윽고 그 글자들은 모여 한 여인의 형상을 이루었다. 유득공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여인의 얼굴이 과거 시험의 문제인 양 제 눈에 담았다. 봄의 냇가처럼 맑은 눈, 꽃빛 도는 새하얀 뺨, 은은하게 풍겨지는 도화향... 향기?

유득공은 퍼뜩 상념에서 깨어났다. 먹물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다. 상상하다가 그만 벼루를 쏟은 모양이었다. 유득공은 급히 먹물을 닦으며 그녀를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불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시린 이유가 뭘까.

유득공은 아침 일찍 약속 장소로 나갔다. 햇살 아래 기지개를 켜 꽃들이 산들바람에 인사하듯 흔들거리고, 복사나무 위로부터 이틀 전 보았던 나비들이 맞이하듯 그의 앞에서 날개를 팔랑거렸다. 나비 무리의 안내 속에, 유득공은 복사꽃 향기를 음미하며 시구를 읊조렸다.

“방중의 복사나무 천 그루나 되는데

사람은 나비 따라 가고 나비는 사람 따라 오네.”

묘한 두근거림 속에 유득공은 그녀에게 할 말들을 정리했다. 너무 일찍 나온 걸까, 아직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뜻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메운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하였으니 믿어야 하건만. 유득공은 뚱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우물가 주위만 서성일 뿐이었다.

“어?”

갑자기 옆에 있던 복사나무 한 그루가 살아있는 생물인 양 쭉쭉 자라기 시작하자, 유득공은 놀란 얼굴로 나무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구름에 닿은 분홍빛 잎사귀들은 알을 품은 암탉처럼 둥근 모양을 이루었다. 분홍빛으로 휩싸인 채 지상으로 내려오는 물체를 감싸고 있던 꽃잎이 사방으로 흩뿌려졌고, 은은한 향기와 함께 청초한 미모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득공은 절로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며 그녀, 천상의 여인임을 부정할 수 없는 향아에게 예를 올렸다.

“어...안녕...하시오...니까?”

꽃 웃음을 터트린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오며 말을 받았다.

“어찌 갑자기 존대를 하시는지요.”

“아니...음...”

유득공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찔찔했다. 그녀는 그의 반응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차분하게 용건을 꺼냈다.

“일전에 궁금하다 하시었던 것을 여쭙보았습니다.”

“아...그렇소?”

이렇게 급할 건 없을 텐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 지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이곳, 도화동(桃花洞)은 오래 전부터 선계의 땅이었다고 하시었습니다.”

용산방을 이르는 이름이겠지, 기존의 이름보다 그녀 세상의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유득공은 이

어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속세의 인간이 함부로 출입하게 되면 그 소문으로 인해 혼란이 닥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출입을 막아둔다고 하시었지요.”

수긍하지 못할 내용은 아니었다, 유득공 자신 이미 여기서 보고 들은 것만 그대로 옮긴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일들이니까. 허나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나만 함구하면 그 우려에 대해서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 합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였다. 분명 옳은 말이건만, 왜 입은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대 세상에서는 모두 그렇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유득공은 열띤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지상의 인간이요.”

지상에는 비밀이 있다. 그러니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 마음을 읽었음인가.

“무엇 때문인가요?”

유득공은 침을 삼켰다. 어떻게 말할까, 뭐라고 전할까. 푸른 하늘로 시선을 돌리며 눈을 감는다.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선녀는 여러 가지 얼굴을 지으며 순식간에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돌아서 바라보니 옥안이 눈이 부시고

말을 머금어 내지 않으니 은은한 도화와 같아

화용이 눈부셔 서책도 잊게 하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도화의 은은함을 담은 눈빛 안에 자신이 비친다.

“발걸음은 가고자 하나 마음이 머물러 하니

생각은 연이어 그리움만 더하고

밤은 깊었는데 잠들지 못하고

영킨 상념에 젖어 새벽에 이른다.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네.

드는 길 잡아 유해는 들었으나

그 마음 서운하여 돌아서지 못하네.”

담담하게 말을 맺은 유득공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일다경(一茶頃: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시각. 약 15분)정도나 지났을까, 소녀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천상의 향아가 그를 응시한다. 투명한 눈망을 속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 있을까. 그녀는 감정을 알 수 없는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일전에 약속을 하면 담보를 받는다고 하시었지요. 그 말은 담보가 있는 약속은 어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는지요.”

유득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담보를 주시겠는지요?”

그가 입고 있는 옷 외에 따로 챙겨온 유일한 것, 유득공은 멍쩍은 얼굴로 소금을 한 움큼 내밀었다. 그녀는 킁 하고 웃음을 흘리며 그 소금을 받아들였다.

“함구하겠다는 말씀, 믿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유득공은 어머니를 비롯한 양반 댁 침모, 찬모 등의 지인들로부터 헬썩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곤 했다. 특히, 어머니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가끔씩 묘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며 픽 웃는 것이 종종 그를 뜨끔하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한 ‘외유사생’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이제는 익숙한 나비들이 언제나처럼 그를 안내했다. 오늘로 일곱 번째,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나비의

몸에서 풍겨오는 복사꽃 향기는 항상 그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든다. 갈수록 그 아찔함이 더해지는 기분인 것은 역시, 그 여인 때문이겠지.

“오셨는지요.”

익숙한 인사와 익숙함을 잊게 하는 아름다운 얼굴이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우물에서 물 한바가지를 떠 그에게 내밀었다. 특유의 톡 쏘는 맛과 함께 모든 피로가 달아나는 느낌이었다.

“고맙소.”

바가지를 도로 우물에 띄우며 그녀가 물어왔다.

“도령은 항상 이 시간에 오시는군요.”

“약속을 하고 여기는 파렴치한은 아니오.”

이전에 그에게 했던 말이었다. 향아는 실소를 터트렸다.

“후후. 기억하고 계셨나요?”

“그렇기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소.”

“지상의 인간들은 서로 속이기 일쑤라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나 봅시다.”

그녀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유득공은 진탕되는 속을 애써 가라앉히며 말을 받았다.

“천상에도 농담하는 사람은 있지 않겠소?”

“그야 그렇지만요.”

“비밀이라면서 그리 쉽게 말해줘도 되요?”

유득공이 약간 놀리려는 어조로 묻자 그녀는 태연하게 탄청을 띄우며 대답했다.

“약속을 하고 여기는 파렴치한은 아니라 하셨으니.”

둘 모두 킁 하고 웃음을 터트렸다. 유득공은 우물가에 걸터앉으며 말을 이었다.

“하루 종일 뭐하고 지내오?”

“외인이 오는지 살펴봅니다. 가끔 우물도 마시고요. 또...”

곰곰이 생각하던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외려 유득공이 당황해 되물었다.

“...그게 끝이오?”

천상의 향아라도 결국은 소녀인가. 그녀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뭐. 누구나 한 번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어떤 중대한 일이기에 그런 건지...”

유득공의 혼잣말 같은 중얼거림에, 그녀는 한층 밝아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후후. 그건 비밀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그리 힘들지도 않아요.”

“최근에 무슨 일이라도 있소?”

의아한 얼굴로 묻는 유득공에게, 향아는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감이 나쁘시군요. 한 번 맞춰 보시지요.”

“...?”

감? 먹는 감은 아닐 테고 대체 무슨 말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까만 눈동자 가득 즐거운 기색이 어려 있었다.

“내일까지 생각해 오세요. 맞추면 답례로 하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지요. 어떠신지요?”

티 없이 맑다는 말은, 아마 그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유득공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르고.

“알겠소.”

향아는 저무는 햇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유득공의 뒷모습을 보며 가볍게 웃었다. 과연 알아올까.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도 시를 짓고 오느냐?”

어찌 보면 평온한 목소리였다. 허나 이십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낸 어머니에 대해 알 만큼 아는 유득

공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예.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를 지었다는 말도 거짓은 아니었다.仙境(仙境)같은 도화동의 풍경은 실제로도 많은 시감을 주고 있었으니까. 물론 온전히 옳은 말이라곤 할 수 없지만.

“그렇구나. 허면 혹시 오늘 지은 시가 있느냐?”

유득공의 얼굴이 순간 난처해졌다. 아무래도 오늘은 어느 정도 걱정된 듯한데, 그의 머릿속으로 읽었던 시들이 뒤죽박죽 엉켜들었다. 이제 의심하는 기미를 감추지 않고 그녀가 물어왔다.

“공아, 내게 거짓말을 하는...”

“콩깍지를 삶아 콩을 볶누나.

술 속의 콩은 울고 있다.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났거늘

어찌 이리 급하게 몰아대는가.”

가까스로 조식의 칠보시(七步詩)를 주워섬기며 유득공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늘 샅바느질로 소일하는 어머니가 알지 못할 시임은 분명하나 불안한 느낌은 여전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일단 밥부터 먹어라.”

일단은 넘어가기로 한 건지,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유득공은 속으로 깊게 한 숨을 내쉬면서도, 어머니의 뒷모습과 향아를 떠올리며 종일 골머리를 앓았다.

유득공은 만나기로 한 시각보다 한참 일찍 도착했다. 혹시라도 단서가 있을까 싶어 미리 도화동 주위를 둘러보는데 도통 알 수가 없다. 심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심심하다는 이유가 대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을 달리 먹은 거라는 원론적인 대답 말고는 나오지 않는다. 마음을 달리 먹어서 그런 것은 당연할 터인데, ‘왜’가 무언지.

“휴...”

유득공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우물가에 걸터앉았다. 해가 서서히 중천에 떠오르고 있었다. 머지않아 그녀가 도착하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유득공은 헤어지기 전 보았던 그녀의 환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 웃음을 다시 보고 싶었다.

“일찍 오셨군요.”

투명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웠다. 어느새 그녀가 건너편 나무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다. 유득공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향아께서도 조금 일찍 나온 듯한데...”

그녀는 생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웠어요.”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유득공은 귀를 의심했다. 그래,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것이요?”

“농담입니다.”

유득공은 순간 설렌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났다. 분명 고백이나 다름없는 말을 들어 놓고 지금 농담으로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막 한마디 하려는 찰나, 향아가 먼저 말을 덧붙였다.

“제 장난 잘 받아주셨으니까, 이야기는 공짜로 해 드릴게요. 어떠신지요?”

유득공은 저도 모르게 픽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어떻게 아요?”

“어라, 못 풀어서 일찍 온 거 아닌지요?”

무구한 얼굴로 물어오는 그녀에게, 유득공은 차마 둘러대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따름이었다.

“그냥 해본 말인데...”

“.....”

유득공은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러면서도 저 뒷모습이 알미운 대신 사랑스러워 보이는 자신의 눈을 한탄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한 걸음씩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들린다. 양옆의 나무들을 가리키는 희고 고운 손이 마법처럼 그의 눈을 찔러온다.

"원래 이곳은 복사골이라고 불렀지요."

그 이름 그대로, 온 사방에는 도화나무의 향기만이 가득했다. 하늘 위에 떠가는 구름마저도 도화 빛을 띠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복사골일 적에는 그 둘다리, 인간은 용산방 외계라고 부르던가요? 거기까지 도화나무가 가득했지요."

"헌데 어째서 지금은 그리 된 것이요?"

"비 오던 날, 도령이 있던 정자를 기억하시는지요. 이름이..."

아마 그 정자만큼은 이름을 잊지 않을 것 같다.

"망원정이요."

대화가 거기에 이르자 잠시 주위를 살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이라는 지상의 높은 분께서 오시던 날, 그 곳에 계시던 향아와 만났었다 합니다."

효령대군이 있던 시절이라면 아무리 못해도 성종(成宗) 연간까지는 거슬러가야 하리라. 유득공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비사(秘事)에 귀를 기울였다.

"향아를 만난 대군께서는 매일같이 그곳을 즐겨 찾으셨는데, 그로 인해 하늘의 이야기가 바깥으로 흘러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제께서 진노하시어 향아를 불러들이고 정자 근처에 칠 일 간 큰 비를 내리셨다 합니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도록 말이지요."

자신이 아는 이야기와는 뭔가 다른 내용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가 끼어들었다.

"효령대군께서 젊을 적 불가에 귀의한 것으로 알고 있소만..."

"그 날 이후 상심하시어 출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훗날 그분의 아우이신 세종(世宗) 임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탄식하며 정자 이름을 회우정으로 지었다고 하지요."

유득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쁠 회, 비 우. 소나기처럼 짧고 강한 기쁨이란 뜻인가, 아니면 비가 씻어버린 기쁨이란 뜻일까, 어느 쪽이든 그리 안 어울리는 말은 아니다.

"칠 일간의 비가 온 뒤, 상제께서는 복사골을 두 개로 갈라 정자가 있는 쪽은 망원동, 지금 오신 곳을 도화동이라 부르기로 하였지요. 어떠신지요, 신기하지 않나요?"

"놀랄 일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소."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앞으로,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앞을 지나갔다. 상큼한 도화 향기가 순간적으로 유득공의 코를 찔렀다. 그녀가 나비의 날갯짓을 눈으로 좇으며 말문을 열었다.

"궁금하지 않아요?"

"무엇...아, 어제 이야기 말이요?"

그녀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할까, 유득공은 난감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렇기는 한데...도통 무언지..."

"어제 약속하셨지요."

그의 머리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어떻게 대꾸해야 할 지 몰라 그저 말끝을 흐릴 뿐이었다.

"어...그러니까...그게..."

"약속 여기는 파렴치한은 아니라더니, 실망입니다."

향아는 썰쭉한 표정으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당황한 유득공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순간 그녀가 획 돌아섰고, 그는 화급히 손을 거두었다. 어깨에 닿은 손이 불에 덴 듯 뜨겁다.

"미, 미안하오. 손을 대려고 댔 것이..."

그녀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불길이라도 된 듯 유득공은 뭔가 확 달

아오르는 느낌에 시선을 피했다. 화가 많이 났을까?

“그, 그러니까...”

“아파 죽겠네요.”

평소 같은 목소리에 유득공은 고개를 들었다. 향아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탄식하듯 읊조렸다.

“약속도 안 지키고, 아녀자의 몸에 함부로 손까지 대고...에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향아에게 유득공은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알 수 없었다. 별로 화난 기색은 없는데, 음. 어찌지. 그냥 하던 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용서하시오. 향아께 무례를 범했...”

나름대로 정중하게 건넨 사죄의 말은 허무하게 끊겼다.

“바보.”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자신이 한 짓도 있고 하니 그저 듣고만 있었다.

“완전 바보 천치.”

“아니...”

뭔가 일관적인 태도를 지켜주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을 꺼내려던 유득공의 노력은, 뒤이은 그녀의 말에 또다시 흩어졌다.

“고마워요.”

“... 갑자기 무슨 말이요?”

천상의 말은 지상과 다른 건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유득공의 모습에 향아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다가왔다. 하얀 볼에 나 있는 작은 숨털이 보일 만큼, 까만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일 만큼. 유득공의 얼굴은 금세 다시 달아올랐다. 그녀는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물었다.

“이렇게 말귀 못 알아들어서 진사시는 어떻게 보려고 그러세요?”

“.....?”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느새 얼굴에 장난기는 사라져 있었다. 선녀가 되려면 얼굴 표정부터 잘 바뀌야 되나, 생각하는 유득공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예의 투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날 지루하지 않게 해준 거, 다 도령 덕분이에요.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하얀 미소와 함께, 유득공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었다. 한 점 그늘도 없는 시원한 웃음이 그녀의 마음에 닿았다.

“후후. 좋아 보이십니다.”

“뭐...아니라곤 못하겠소.”

기분이 좋아서인지 평소의 그보다는 훨씬 대담한 말에 그녀는 웃음을 터트렸다.

“후후. 그럼 다음에는 못 알아듣기 없기예요?”

순간, 유득공의 몸이 움찔했다. 그녀는 놓치기 않고 췌기를 박았다.

“못 들었어요?”

“무, 물론 그리...하리다...”

비척비척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돌리며, 향아는 옷의 매무새를 정리했다. 그의 손이 닿았던 왼쪽 어깨에 도는 온기를 느낀 그녀는 열은 미소를 베어 문 채 멀어져가는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석양이 지고 있었다.

"천도(天桃)입니다. 맛있어 보이지요?"

선녀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열매를 틔운 복숭아들이 유혹하듯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유득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살폈다. 나무의 높이로 보았을 때 반침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건 기우일 뿐. 그녀가 손을 내뻗자 호응하듯 복숭아 두 개가 떨어져 내렸다. 복숭아를 건네는 그녀의 손끝이 유득공의 손을 스쳤다. 웬지 묘한 부끄러움을 느낀 그녀가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맛이 어때요?”

유득공은 천도를 한동안 바라보다 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녀가 의아한 얼굴로 입술을 달싹였다.

“복숭아가 입에 맞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셔서...”

“아...”

항아는 한 개의 복숭아를 더 건넸다. 염려스러운 얼굴의 유득공에게, 그녀는 괜찮다는 뜻의 눈짓을 보내며 말을 이었다.

“도령의 자당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살이는 넉넉지 않으나 마음은 누구보다 곧은 분이요.”

“엄친께서는 어떤지요?”

유득공은 손에 든 복숭아를 한 입 깨물며 천천히 대꾸했다.

“얼자라서 잘 모르겠소.”

“미안해요, 괜한 걸 물어서...”

“뭐 어쨌소. 죄도 아닌데.”

먹고 남은 복숭아씨를 뱉으며 유득공이 말을 이었다.

“항아의 양친은 어떠시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못 뵈 지 오래됐고요.”

이번에 할 말이 없어진 것은 유득공 쪽이었다. 그녀는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궁금하지요?”

유득공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 위로 쓸쓸한 바람이 불어갔다.

“용산방에 한 가족이 살았어요. 마음 착한 김씨 노인과 어린 딸 단 둘이. 없는 살림에도 딸에게는 밥 한 끼 거른 적이 없었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딸은 부족한 걸 모르고 자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가는 떨림이 일었다. 유득공의 표정도 가라앉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집에 선관(仙官)이 찾아왔습니다. 상제께서 보잘것없는 그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지요. 노인은 살기 좋은 천상이라는 한 마디에 눈물을 꼭 참고 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딸은 졸지에 항아가 되어 선경에 들게 되었지요.”

자조적으로 말을 끝낸 그녀의 시선이 바람에 흔들거리는 복사꽃 나무에 닿았다. 햇볕 속에 몸을 붉힌 복숭아가 눈길을 자극하고 있었다.

“아버지도 복숭아를 유독 좋아하셨지요.”

유득공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후로는...한 번도 만나 뵈 적이 없소?”

“선인이 된 이상 이전 생의 인연은 끊어낸다 하니...”

없다는 뜻이리라. 그녀는 우물가에서 몸을 일으켰다. 산책하듯 걷는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어깨가 원래 저리 작았던가. 유득공은 복숭아씨를 소매에 감추고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게...댌을 알려주지 않겠소?”

그녀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유득공의 표정은 진중했다. 마치 조식의 낙신부를 개사해 고백하던 그 때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자신을 보고 있다. 천상의 여인은 고개를 젓는다.

“마음만으로 충분히 고마워요.”

“나는 상관없지 않소? 항아의 안부라도 전해 줄 수 있지 않겠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예의 투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유득공은 근처에 뭐가 있나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흠날리는 꽃잎 밖에 없었다.

“항아..?”

“도령은 참 좋은 분이예요.”

그녀가 미소를 지어보였다. 아름답지만 단호한 웃음이었다. 고맙지만 안 되는 일이라고, 그녀의 까만

눈동자가 말하고 있다.

유득공은 씩씩하게 웃었다. 언제나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던 그녀와 시선을 마주한다. 예전에는 야속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이 순간 꼭 깨문 입술이, 흔들리는 눈빛이 모래성을 허무는 파도처럼 그 마음을 지웠다. 원치 않는 말을 꺼내게 하기조차도 하고 싶지 않다.

“...더 묻지 않으리다.”

유득공은 나직하게 한 마디를 내뱉고 돌아섰다. 향아는 여전히 떨리는 눈으로 그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한 발짝, 한 발짝. 비밀에는 가까워지고, 거리는 멀어져간다.

“저기...”

흐르는 바람 속에 목소리가 묻힌다. 그에게 다가가 다시 한 번 불렀다.

“할 말이 있어요.”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이해하게 해주고 싶다. 그저 비밀이라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은 사람.

“위험할 거예요.”

“무슨 뜻이요?”

유득공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꺼냈다.

방 한쪽 구석에 앉은 유득공은 침울한 얼굴로 눈앞에 놓여 있는 복숭아를 바라보았다. 은은한 향기가 안을 채웠다. 신벌(神罰)이라 했는가.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라.

-옛 인연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저는 물론 도령까지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이 무엇이요?

-저는 지상 출입이 금지되고, 도령은 아마도...

향아는 말끝을 흐렸다. 유득공은 답답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잊어버릴 거예요. 이 순간이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잊는다고?”

그녀의 말을 되뇌었다. 귀엽고 청초한 얼굴, 환한 미소, 장난기 어린 목소리, 은은하지만 어느새 빠져 나갈 수 없게 자신을 묶어버린 향기까지. 모두 잊는다?

유득공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하지 말자, 모두 지워 버리자.

-이전 생의 인연은 끊어낸다 하니...

목소리가, 몸짓이, 표정이, 모두 끊어낸 이의 것이 아니거늘. 선녀가 무엇이며 향아가 다 무엇인가. 그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인 어린 아이일 뿐이거늘.

드록-

유득공은 신색을 정리하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다녀오셨습니까?”

“오, 그래.”

옷 보자기를 한쪽에 내려놓은 어머니의 시선이 복숭아에 닿았다.

“어디서 난 게야?”

“외유 도중에 마음 좋은 어르신이 주셨습니다.”

그녀는 반가운 듯 복숭아를 한 입 깨물었다. 입 안 가득 번지는 상큼한 향기에 만족하면서도 어쩐지 미심쩍은 기색으로 물었다.

“안색이 왜 그리 안 좋아, 혹시 서리라도 한 게냐?”

“어머니도 참...소자가 그리 보이십니까.”

맥 빠진 목소리에 그녀는 더 묻는 대신 가져온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아들 쪽을 흘끗거렸다. 유득공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늘 자신에게 신경써주고, 돌봐주고, 감싸줄 어머니가 그녀에게는 없겠지. 여인의 아름다움보단 소녀의 풋풋함이 더 돋보이는, 그래서 더 어울리지 않았던 씩씩한 뒷모습이

가슴을 저릿하게 울린다.

“공아.”

“예, 어머니.”

“정녕 괜찮은 게냐?”

유득공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말라는 듯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허나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녀는 빨리 끝낼 수 있는 옷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접어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음이 분명하다.

“하아...”

항아는 몇 번째일지 모를 한숨을 내쉬었다. 말을 해준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다.

위험하다는 말은 자신의 경우일 뿐, 도령은 아닐 수도 있다. 그가 진사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가게 된다면 길어야 두 달.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자신이 천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반 년. 인생 오십이라 하였으니 두 달이나 여섯 달은 그저 찰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더 깊어지기 전에, 아직 좋은 벗이라 느낄 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고 싶지 않아서 위험하다 했다. 아버지가 보고 싶지만 안부를 전한다 한들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만 다시 시작하셔야 하겠지. 하늘에서 가끔 마을을 내려다보고, 무병장수를 빌며 그것을 최선이라 한다면 너무 큰 불효일까.

그의 손이 닿았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맙다는 말 한 마디에 그저 웃기만 하던 바보. 그 바보도 원치 않을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 하면 너무 속 보이는 거짓말일까. 그녀는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득공은 아침 일찍 걸음을 옮겼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돌아가지 않겠다는 듯 발걸음은 당당했고 거침없이 그 곳을 찾아가고 있었다. 금세 돌다리를 건너고, 꽃밭을 지나 도화 나무 앞까지 도달한 유득공은 문득 비가 오던 그 날을 떠올렸다. 그 때 여기 오지 않았다면, 비가 오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겠지. 유득공은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 여유롭게 주변의 정경을 눈에 담으며 그 날의 시구를 읊조렸다.

“바람 불고 비오니 시냇물 불어나는 것이.

이 봄이 가기 전에 도화동 구경가세나.

동중의 복사나무 천 그루나 되는데

사람은 나비 따라 가고 나비는 사람 따라 오네.”

이로서 족하리라. 그녀와 자신만의 이야기로, 둘만이 아는 말로 남으리라. 유득공은 자신의 노래를 되뇌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녀에게로 다가섰다.

“어찌 이리 일찍부터 나와 있소?”

항아는 대답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도 고민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득공은 먼저 용기를 낼 때임을 직감했다.

“할 말이 있소.”

“무엇인가요?”

“택이 어디요?”

항아는 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걸까. 원치 않는 일일 텐데.

“어째서...지요?”

“오래 고민했소.”

유득공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가슴 한 편이 자꾸만 시리다. 날씨 때문도 아닌데 옷을 여민다.

“찾지 못하는 불효가 어떨지...짐작 할 수 없소. 무게를 가늠하려 하는 것 또한 내 욕심이니...”

끝내 말을 흐렸다. 고작 한 마디일 뿐인데, 자책하며 유득공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어쩌면 그가 찾아왔을 때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할 말이 있다 할 때는 분명히 알았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이유일지. 바보, 바보 했더니 정말 바보가 되어 버렸다. 그 바보에게 자신은...대답해야 한다.

“하지 말아요, 라고 한다면 듣지 않을 건가요?”

“...그렇소.”

두 번 피해갈 수는 없으리라. 그의 얼굴에 찬 결의가 그녀에게도 결심을 촉구했다.

“외동(外洞), 도화 나무...”

유득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짐짓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걸리지 않으면 될 일 아니겠소? 걱정 마시오.”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였다기보다는 그저 무심결에 움직였다는 표현이 어울리리라. 더 있다가는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워, 유득공은 이내 저편으로 사라졌다. 향아는 그가 사라져간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때, 새로운 인기척이 들렸다. 시선을 돌린 곳에서 단정한 인상의 중년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향아는 그녀의 정체를 직감했다. 유득공은 자신이 장옷을 주었기에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었다. 저 여인은...

“머, 멈추세요!”

여인이 순간 흠칫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허나 그 뿐.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다가오고 있었다.

“제발...서 계세요!”

순간 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유득공의 어머니는 별안간 변한 날씨에 깜짝 놀랐고, 향아는 그것이 의미하는 사실에 놀랐다.

‘이렇게...빨리?’

지켜보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신속한 대처를 할 수는 없었을 터. 향아는 입술을 깨물고 달려 나갔다. 최소한 관계없는 사람만큼은 지켜야 한다. 유득공 어머니의 얼굴에서 유득공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의 손을 잡아가는 향아의 등 뒤로 구름을 타고 내려온 선관(仙官)들의 기척이 느껴졌다.

“멈춰라!”

향아는 아무 대꾸 없이 소매를 저었다. 동시에 수천수만 마리의 복사꽃잎이 나비로 화해 선관들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그 사이, 유득공 어머니의 손을 잡은 향아가 속삭였다.

“이제 걱정 마세요. 도령에게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아니, 아가씨는 대체...여긴...”

유득공의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물어왔지만 대답할 시간조차 여의치 않았다. 어느새 나비들의 장벽을 뚫고 선관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더 설명해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세요. 아드님께는...”

“잡아라!”

지척까지 다가온 선관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정말 감사하다고, 항상 잊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막 맨 앞의 선관이 그녀의 몸을 잡아챌 순간, 유득공 어머니의 몸이 동실 뜨더니 분홍빛 기류에 휩싸여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날아가기 시작했다. 선관 몇이 육지거리를 내뿔으며 추격했지만 순식간에 멀어지는 기류를 따라잡기는 무리였다.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향아는 흠칫 놀라 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조각 같은 용모에 새하얀 백의가 더없이 잘 어울리는 사내는 자신이 걸어온 쪽을 눈짓하며 말했다.

“폐하께서도 와 계신다.”

“...!”

항아의 시선이 커다란 태사의 위를 향했다. 거기에는 한 노인이 있었다. 기린 문양이 그려진 눈처럼 흰 백의, 금테 두른 익선관. 상계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이는 하나였다.

“상제 폐하...”

유득공은 더욱 걸음을 바빠 놀렸다.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이기 시작한 구름들이 파리를 틀듯 한 자리에 멈춰 있다는 사실이. 그 자리가 그녀의 우물가 근처라는 사실이 그의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그녀는 무사할까. 부디 아무 일 없기를. 유득공은 이를 악물고 달리고 또 달렸다. 저 앞으로 하얀 안개가 보인다. 원래대로라면 복사꽃 나무가 보여야 했다. 믿고 싶지 않은 일,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으로 유득공은 몸을 날렸다.

“이제 오느냐.”

상좌에 앉은 노인이 기다렸다는 듯 그를 맞이했다. 상제 옆에 시립한 차가운 인상의 사내가 나직한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건방진 인간.”

유득공은 사내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선관들 한가운데, 정확히는 상좌의 노인에게 무릎 꿇고 앉은 여인에게 향했다. 삼단 같은 머리카락 사이로 투명한 눈동자가 비쳤다. 유득공은 자석에 이끌리듯 항아에게 다가갔다. 고개를 든 항아의 이슬 맺힌 눈이 그의 뇌리에 화인처럼 박혀들었다.

“보고 싶었소.”

근심 가득한 그녀의 입가에 순간 열은 미소가 스쳤다.

“...바보.”

듣고 싶은 목소리가 귀를 간질인다. 문득, 그저 이대로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유득공은 들어라.”

상념을 깨고 노인의 중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항아를 알고 있느냐?”

그제야 유득공은 상좌에 앉아있는 천상의 상제와 시선을 마주했다. 입고 있는 옷만큼이나 하얗게 섰 머리는 그저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미증유의 거력에 유득공은 머리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합니다.”

“항아를 은애하느냐?”

유득공은 그녀 쪽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까만 눈망울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 백설처럼 하얀 얼굴이 더 없이 사랑스럽게 비쳤다. 이내 항아의 불이 붉게 물들었다. 지금은 상제도, 백의 사내도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러합니다.”

“이놈!”

상제는 손을 들어 백의 사내의 말을 제지했다.

“허면 무슨 벌을 받든지도 알고 있느냐?”

앞으로 새장 속의 새처럼 그저 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여인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눈망울이 저리 떨리는데, 온 몸이 저리 떨리는데. 그가 고개를 젓는다.

“소인이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될지요.”

“이놈이 어디서 수작을...!”

“소별왕!”

상제가 처음으로 낮지만 강한 경고성을 발했다. 상제의 차남인 아름다운 용모의 소별왕(이승의 신)은 지엄한 명에 물려서면서도 건방진 인간을 매섭게 노려보는 것은 잊지 않았다.

“말해 보아라.”

“분명 제게 향아를 은애하노라 물으셨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랬지. 그게 어쨌다는 말이더냐?”

상제가 재미있다는 눈빛으로 되물었다. 유득공은 마른침을 삼키며 머릿속으로 말을 정리했다. 한 마디, 한 마디. 한 번의 실수가 끝으로 직결된다.

“소인 감히 향아를 은애하였나이다. 그것만으로도 죄가 됩니까?”

소별왕의 얼음 같은 시선이 그에게 닿았다. 상제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자애로운 노인의 것처럼 편안한 웃음이었지만 유득공에게는 소별왕의 시선보다 더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맹랑하구나. 대답에 앞서 내가 하나 물어도 되겠느냐?”

“하문...하십시오.”

“천도무친(天道無親)이란 말을 들어 보았느냐?”

유득공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침착하게 말을 받았다.

“하늘의 도는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이 아닌지요.”

“똑똑하구나. 그럼 이제 향아에게 묻겠다. 너는 하늘을 속일 수 있느냐?”

향아는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인다 하면 상제에 대한 대역(大逆), 아니라 하면...그녀의 눈길이 유득공에게 닿았다. 유득공의 표정 역시 그녀와 다르지 않았다.

“향아는 대답하라.”

상제의 옆에 시립한 선관이 무감정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향아는 입술을 달싹이며 나오지 않는 말을 중얼거릴 따름이었다.

“저...그건...”

향아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어느새 그녀의 손끝에 닿은 손 때문에. 유득공은 그녀의 하얀 손을 꼭 붙들었다. 선관들의 눈빛에 이체가 어렸고, 소별왕의 날카로운 시선이 유득공과 충돌했다. 금방이라도 상대를 무너트릴 수 있을 것 같은 위압감이 그 사내에게는 있었다. 허나 당신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리. 유득공은 손 안에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상제는 혀를 찼다. 향아 스스로 끊어 낼 때까지 관여치 않으려 했다. 아들인 소별왕이 간절하게 원해 데려온 여인이다. 자신의 마음에도 들었다. 며느리 감으로 충분한 여인이다. 굳이 신법으로 다스리고 싶지 않았다.

허나 어찌 감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랴, 그렇기에 갑자기 천도에 끼어든 인간에게도 관여하지 않았다.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다. 봄날의 꿈은 아름답고 달콤하지만 또한 꿈이기에 한 순간일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닫길 기다리고 싶었다.

“너는 지상의 인간이며, 향아는 천상의 선인이다. 그래도 은애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저 꿈으로 끝날 일임을 정녕 몰랐더냐?”

천상의 지배자와 십 대 소년이 서로를 일별했다. 상제의 뜻이 찰나지간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그는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 말은 이미 결정이 돌이킬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겠지.

맞잡은 손 너머로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려온다.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다. 조금만 일찍 만났다면. 이 순간이 조금만 늦게 찾아왔다면. 그저 한 순간의 연장일 뿐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잠깐이나마 그대와 오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손등으로 한 줄기 빗방울이 툭 떨어진다.

맞잡은 손으로, 그녀의 장옷으로, 그의 갓으로 빗방울이 떨어진다. 처음엔 여우비였던 줄기가 금세 굵어진다. 상제는 자신의 팔을 적셔오는 빗물을 바라보며 길게 탄식했다.

하늘은 감정을 갖지 않는다, 가져서는 안 된다. 그 하늘이 눈물을 흘뿌린다.

“향아는 들으라. 너는 앞으로 지상에 내려가는 것을 금하며 일후 별도의 명이 있기 전까지 구름 물레를 돌려야 한다. 알겠느냐?”

“폐하! 그것은...”

“그대에게 묻지 않았다!”

천상의 지배자는 다시 한 번 이승의 신이 발하는 기세를 누르고 그녀에게 답을 요구했다. 그녀는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라도.

“그리 하겠사옵니다. 상제 폐하.”

상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득공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유득공은 들으라. 너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는 안 될 곳에 의도적으로 찾아왔으며, 항아와 은애하여 결국 오늘에 이르렀다. 하여 너의 모든 기억을 지울 것이다. 알겠느냐?”

이제 소나기처럼 굵어진 빗물 속에서 유득공은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빗물 속에서도 영롱한 까만 눈망울이 말로는 차마 뱉지 못할 감정을 품고 그를 보고 있다. 유득공은 그녀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저편에서 선관 한 사람이 걸어온다. 항아가 자신을 각인하려는 듯 시선을 똑바로 맞춘 채 하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잊지 말아요. 이번엔 약속 지켜줄 거지요?”

설레기만 하던 시절의 어느 날 맺은 약속처럼. 서로의 웃음에 매혹된 그 날을 기억하며.

유혜가 천천히 꽃밭 위를 거닐었다. 이리저리 굵히고 헤진 신발의 모습은 사내가 입고 있는 결 좋은 비단옷에 비해 너무도 초라할 따름이었다. 사내의 손을 잡은 열두 살 정도의 여자아이는 그제 불만인 듯 연신 툭툭거렸다.

“신발에 다 흙 묻잖아. 엄마가 버선 물 빼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하하, 미안하구나. 신경 써야지.”

“치...말로만.”

불혹(不惑)에 조금 못 미쳐 보이는 장년의 사내는 소녀를 어르고 달래기를 반복하며 꽃밭을 헤치고 나아갔다. 꽃밭 너머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꽃잎을 날리는 복사꽃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빠, 이건 뭐야?”

“복사꽃 나무란다. 향이 어떠니?”

소녀는 병풍처럼 펼쳐진 나무들을 눈으로 훑으며 중얼거렸다.

“꽃도 향도 다 예쁘다.”

“아빠도 가장 좋아하는 꽃이야.”

그의 눈빛이 아련하게 젖어들었다. 소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힐끔 일별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는 꽃 같은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사내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날 기억을 이야기했다.

“아빠가 도화보다 딱 다섯 살 많았을 때 이 꽃을 처음 봤는데, 그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단다.”

“지금도 이렇게나 많은데?”

“저 안쪽에는 지금도 많단다. 더 들어가 볼래?”

“좋아!”

사내는 자신의 딸, 도화의 손을 잡고 천천히 나무숲 사이로 들어섰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앞으로 작은 우물이 보였다.

“와!”

도화는 반색하며 곧장 우물가로 뛰어갔다. 한참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소녀는 이내 울상이 되어 징징거렸다.

“바가지도 없고. 뭐야!”

사내, 유득공은 우뚝 멈춰선 채 우물가의 정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다. 단 하나만 제외하고.

“아빠, 바가지가 없다니까?”

— 잊지 말아요. 이번엔 약속 지켜줄 거지요?

유희공은 눈을 감았다. 하얀 장옷을 입은 까만 눈망울의 소녀가 그를 향해 미소 짓는다.

이십 년 전 모든 것이 서툴고 풋풋했던 그 때. 그의 모든 것이었던 그녀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바람 불고 비오니 시냇물 불어나는 것이.

이 봄이 가기 전에 도화동 구경가세나.

동중의 복사나무 천 그루나 되는데

사람은 나비 따라 가고 나비는 사람 따라 오네.”